

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

춘천 교구대회

홈스테이 안내

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
춘천교구 WYD 사무국

일러두기

본 자료는 각 본당의 홈스테이 가정 모집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안내 자료입니다.
자료에 안내된 교구대회 관련 내용은 2026년 3월 현재 기준의 초안으로,
향후 대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따라 홈스테이 가정의 역할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1. 홈스테이란?

홈스테이는 본당 공동체가 함께 해외 순례자를 맞이하며 가정교회와 보편교회를 체험하는 사목 활동입니다. 이를 통해 가정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, 본당 공동체의 활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

"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"(마태 18,20)는 말씀처럼, 순례자를 맞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.

■ 신앙 중심의 동반

무엇을 먹이고 어디서 재우느냐보다, 순례자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찬사입니다.

■ 우리 공동체를 위한 홈스테이

순례자들은 잠시 우리 교구, 우리 본당에 방문하여 보편 교회를 체험하는 것일 뿐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은 우리 교우들입니다.

홈스테이를 통해 우리 교우들이 가정 성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.



2. 홈스테이의 기대효과

1. 본당의 공동체 활성화

- 공동의 목표 의식 : 전 신자가 환영 행사와 대청소 등을 준비하며 소속감이 고취됩니다.
- 참여의 외연 확대 : 구역·반 중심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(재워주기, 아침 식사 차리기, 차량 봉사 등) 평소 활동이 적었던 교우들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- ▶ 교우1: “저는 일찍 출근해서요. 재워줄 수는 있지만 아침밥 제공이 어려워요.”
- ▶ 교우2: “그러면, 제가 일찍 일어나니 아침 밥을 제가 제공할게요!”
- ▶ 교우3: “저는 아이가 있어 숙식 제공이 모두 어려워요.
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참가자들을 성당에 데려다
줄 수 있어요!”

- 환대 문화 정착: 해외 순례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은 본당 내 소외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를 줍니다.



2. 신앙 체험

■ 아브라함의 환대(창세 18,1-15) 재현

: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맞이했던 아브라함처럼,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.

■ 영적 동반과 쇄신

: 홈스테이 가정은 순례자들의 열정적인 신앙 체험을 공유하면서 가정 안에서 신앙을 깨우고, 순례자들은 홈스테이 가족의 따뜻한 배려로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.

■ 영적 유대

: 세계청년대회와 순례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홈스테이 가정은 그들의 '동반자'가 됩니다. 이 영적 유대는 대회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며, 홈스테이 가정에게 '교회는 나 혼자아 아닌,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.'는 보편교회의 감각을 심어줍니다.

3. 보편교회 체험

-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같은 신앙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. 해외 순례자들의 고유한 전례와 기도 문화를 접하며 교회의 풍요로움을 목격합니다.

4. 자녀들의 국제 교류

- 신앙 안에서 성장한 외국 청년들과 교류하며 국제적 시야와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.
- 대회가 끝난 후에도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며, 훗날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연결고리가 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.

3. 홈스테이 생활 안내

▶ 생활 및 안전 가이드

§ 가정

순례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호텔 같은 시설이 아니라, 가족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마음입니다. 평소처럼 편안하게 그들을 맞아주세요.

- **공간 보장** : 개인별 최소 1.5m ~ 2m의 공간을 제공하며, 가급적 분리된 공간을 권장합니다. 침대 제공은 필수가 아닙니다.
- **프라이버시** : 순례자의 허락 없이 가방을 열거나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- **구성 원칙** : 반드시 동성 2명 이상을 초대해야 하며, 홈스테이 가정이 남성 또는 여성만인 경우, 이성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.
- **휴식 배려** : 대회 일정으로 지친 청년들에게 밤늦은 대화나 관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.
- **안전 규정** : 순례자의 안전과 다음 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통금(00시~06시)을 지켜 주십시오. 지나친 주류 제공은 금지합니다.
- **응급 대응** : 건강 이상, 사고, 분쟁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즉시 본당 담당자 또는 교구 조직위원회로 연락합니다.



§ 공동 숙소

본당의 강당, 교리실, 유치원 시설 등을 공동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,
본당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순례자를 맞이하는 '환대의 영성'을 실천해야 합니다.

- 공간은 반드시 남/녀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.
- 최소 1.5m×2m의 공간을 보장해 주십시오.
-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, 30세 이상과는 분리해 주십시오.
- 미성년자 10명 당 성인 1명이 동행해야 합니다.
-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(화장지 구비)과 샤워실, 탈의실을 준비해 주십시오.
- 아침 식사는 본당 공동체에서 간단히 준비해 주십시오.
- 이외의 사항은 홈스테이 가정의 기준과 동일합니다.



▶ 식사 가이드

■ 검소한 환대

· 화려한 식사보다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

· 가정 간 비교가 되지 않도록 본당에서 계획한 식단표를 준수합니다.

· 예) 누룽지, 달걀, 김, 김밥, 라면, 토스트 등 간단한 식단 제공 - 추후 안내 및 교육 예정

· * 알러지/채식주의 식단은 별도로 확인합니다.(대회 참가 신청 시 확인.)

■ 간식

· 간식은 순례객들이 허기질 때 혹은 가정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· 다만 식사 제공과 마찬가지로 가정 간의 비교가 되지 않게 가벼운 다과 정도면 됩니다.

■ 기타 배려

· 순례자의 텀블러가 있을 경우, 얼음과 식수를 채워주세요.

· 순례자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는 교구에서 마련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

· 다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,

· 간단한 저녁 식사나 간식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■ 참고 사항

· 식사나 간식을 나눌 때 배불리 주시기보다 조금 적은 양을 제공해 주시고,

· 원하는 만큼 추가로 더 먹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· 많은 것을 베풀어주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,

· 순례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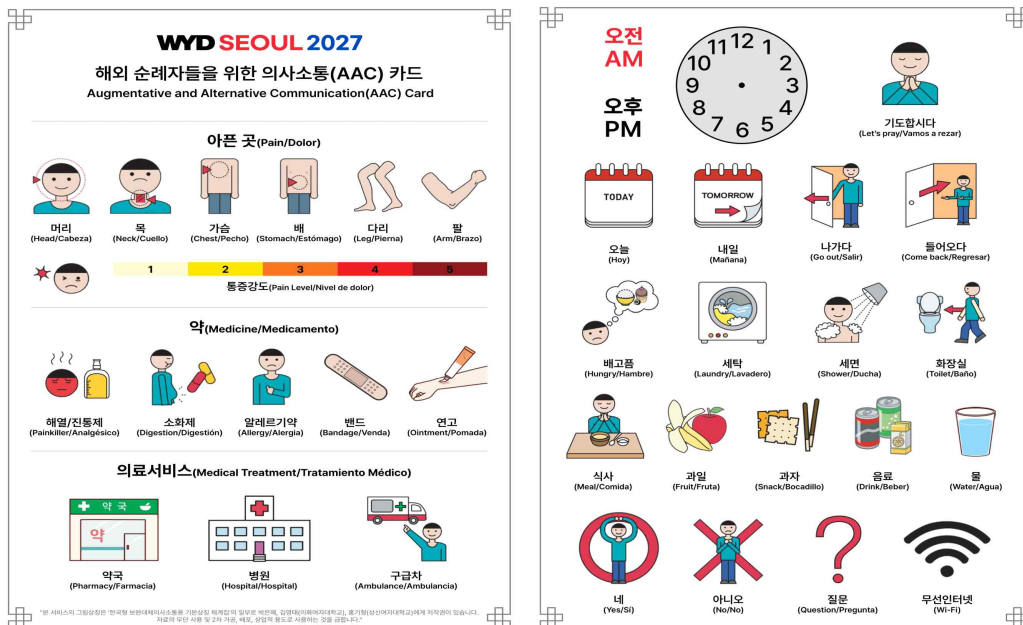
4. 교구대회 기간 일정 (2027년)

◆ 7월 29일(목) : 일치의 날 - 환영

- 지구별로 선정한 환영 거점 본당에서 해외 순례자 환영
- 배정된 교구와 순례자 수, 본당 도착시간은 순례자 배정이 끝난 후에 본당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(27년 3월 이후로 예상)
단, 본당 도착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

※ 본당으로 오는 해외교구와 순례자 규모가 정해지면, 본당에서 홈스테이 신청서에 기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순례자들과 홈스테이 가정을 매칭시켜 주세요. (늦어도 2027년 6월까지)

- 홈스테이 가정은 본당에서 준비한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 환영 프로그램 중에 각 본당에서는 홈스테이 가정과 순례자들의 만남을 진행합니다. (예시 프로그램은 추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)
- 환영 프로그램을 마친 후, 홈스테이 가정은 순례자들과 함께 귀가 합니다. 교구에서 홈스테이 가정에 환영 팸말을 미리 전달 할 예정입니다.
- 매일 저녁 가정에 함께 모여 저녁기도를 바치고, 저녁식사를 합니다. 홈스테이 가정과 순례자들은 **자발적으로**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.
- 소통을 위해서 AAC(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Card, 보완 대체 의사소통)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(교구에서 제공 예정)



- 홈스테이 가정들은 미리 본당으로 전달된 교구대회 기념품(티셔츠, 평화 십자가 목주, 교구 손수건)을 챙겨주시고, 직접 순례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전달 방법은 본당에 따라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.
- 홈스테이 가정들은 반드시 순례자들에게 본당 주소, 홈스테이 가정의 주소, 또는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
◆ 7월 30일(금) : 평화와 찬미의 날 - 평화 순례

- 오전 : 지역별 거점으로 이동하여 주변 지역 관광.
점심 식사 : 지구별 도시락 준비
오후 : 지역별 안보 관광 / 오후 3시 평화 기원 미사 봉헌
- 일정이 종료되면 본당으로 복귀하여 신자들과 함께 작은 파티 진행

◆ 7월 31일(토) : 신앙의 날 - 신앙 부스 체험(10:00~15:00)과 순례자 미사(16:00)

- 각 가정에서 아침을 먹고 춘천으로 이동하여, 순례자들이 모두 춘천에 모인다.
- 순례자들은 자유롭게 춘천을 돌아다니며 각 본당 및 부스에서 신앙 체험을 한다.
- 오후 4시, 호반체육관에서 교구장 주교 주례 순례자 미사에 참례한다.
- 미사 종료 후 각 본당으로 복귀한다.



◆ 8월 1일(주일) : 공동체의 날 - 홈스테이 가정과 친교 이루기

- 본당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교중 미사를 참례한다.
- 미사 종료 후 본당에서 찬미받으소서에 기초를 둔 행사를 진행하며, 홈스테이 가정은 순례자들과 함께 참여한다.
- 행사 종료 후 순례자들은 홈스테이 가정과 시간을 보낸다.



◆ 8월 2일(월) : 파견

- 새벽 미사에 참례한다.(본당 미사 시간에 따라 상이)
- 미사가 끝나면 아침 식사 후 순례자들과 작별한다.
- 순례자들은 작별 후 수송 계획에 따라 서울(본대회) 이동, 서울 도착 이후 교구대회 종료

5. 이동

이동은 순례자를 마중 나가 처음으로 맞이하고,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들과 함께 귀가하는 것입니다.

■ 도보 이동

도보로 이동할 경우 대화와 소통의 시간으로 활용하며 긴장감을 완화하고 친근감이 형성 되도록 합니다. 구역이나 반 인원이 함께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■ 차량 이동

긴 구간 이동 혹은 도보 이동 구간에 위험성이 있다면 차량으로 이동을 추천합니다. 차량 탑승 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 홈스테이 가정 외 구역, 반, 단체 등에서 차량 이동으로 나눠서 함께 동반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
6. 기타

- 교구대회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홈스테이 가정 신청이 완료되면, 홈스테이 가정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당 준비 자료는 완성되는 대로 배부될 예정이며, WYD 본당대표 봉사자들의 연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춘천 교구대회는
순례자를 맞이하는
여러분의 따뜻한 가정과 본당 공동체의 사랑으로부터 완성됩니다.”